



전기시사용어 해설 Smart 토크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전 세계 에너지 리더들, 오는 10월 한국으로 총 집결

- 에너지 분야 세계최고 권위 민간국제회의, 아시아에서 세 번째 개최
- 전 세계 100여 개국 5000명 이상 에너지 리더들 참석, 모든 에너지 분야 집대성
- 에너지 장관회의, 산업전시회, 연설 및 강연, 이슈 토론 등 세계에너지업계 최대행사
-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에너지 외교와 비즈니스 교류도 마련 기대

제22차 세계에너지총회 개요

- 일시: 2013 10월 13일(일) - 17일(목)
- 장소: 대구 EXCO
- 총 회 주 제: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 (Securing Tomorrow's Energy Today)
- 참가대상: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정부, 기업, 국제기구, 학계, 협회 등 약 5000명
- 행사내용: 에너지장관회의, 연설 및 강연, 이슈 토론, 논문·보고서 발표, 에너지산업전시회, WEC집행이사회, 산업시찰 및 동반자 프로그램 등
- 주최: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 2013 대구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
- 공식홈페이지: www.daegu2013.kr



올 10월 세계 에너지 업계의 이목은 대구로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에너지 장관과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경영자, 국제 기구의 핵심인사 등 각계 각층의 주요 VIP들이 참여하는 제22차 세계 에너지총회가 올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대구 EXCO에서 개최된다.

세계에너지총회는 세계에너지협의회(World Energy Council)가 1924년 이후 3년마다 개최하는 민간부문 세계 최고 권위의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로, 2013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한다.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 아시아의 중요도가 계속 해서 가중되는 시점에서 인도(1983년)와 일본(1995년) 이후 세 번째로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총회 사상 최초로 중국, 일본, 인도의 정부 및 업계에서 대거 참여가 예상되며 아시아 국가들의 발언권을 확립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ecuring Tomorrow's Energy Today (내일의 에너지를 위한 오늘의 행동)’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13세계에너지총회에는 약 1주일간 모든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총회는 UN의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 (SE4ALL)’ 선포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적인 에너지 행사이자,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다.

전기시사용어 해설 Smart 특특

2013세계에너지총회에서는 세계 각 지역별 에너지 현안과 화석연료부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까지 모든 에너지 분야의 이슈를 다룸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에너지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세계에너지협회의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불균형 수급문제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 등 현재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시급한 에너지 현안들을 에너지 삼중고(Energy Trilemma)로 정의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열띤 논의와 토론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 일본 전력회사인 TEPCO, 중국 국가전망공사(SGCC)의 회장, 지멘스 에너지, 로얄 더치셸, 알스톰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최고경영자 그리고 러시아, UAE 에너지 장관을 포함한 약 50개국의 에너지 장관들, UN 산업개발기구(UNIDO),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재생기구(IRENA) 등 국제기구의 수장들과 각 지역의 개발 은행 총수 등 약 200명의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세계 에너지산업의 현안과 향방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력을 엿 볼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총회와 더불어 진행되는 2만2,000m² 규모의 전시회는 최대 2만5,000명의 관람객들에게 에너지 관련 최신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는 물론 새로운 시장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이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는 에너지 정책뿐 아니라 금융·법·환경 분야, 투자자, 제조·교육·연구기간의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대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세계의 에너지업계 리더들로부터 한국의 첨단 에너지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 받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정책의 산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0 몬트리올 세계에너지총회 에너지장관회의



2010 몬트리올총회 세계에너지협의 피에르 가도닉스 의장

전기시사용어 해설 Smart 토크

총회 참가 등록은 오는 9월 15일까지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 마감 후에는 대구EXCO 현장 방문을 통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등록 및 문의사항은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회 운영 프로그램 세부내용

* 분야별 주제

총회에 참가하는 전 세계 기업, 정부, 국제기구, 학계, 협회 등 모든 에너지 분야 리더 및 전문가들은 세계에너지협의회와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 간 에너지 정책조율과 에너지 삼중고에 대한 국제적 공조, 미래 에너지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망”, “셰일가스 개발” 등의 에너지계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제들도 다루어 질 예정이다.

■ 원자력

2013세계에너지총회에서는 원자력 르네상스의 시대는 끝났는가? 혹은 제2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재발 할 가능성이 있는가? 등의 논제를 두고 토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일본의 동경전력(TEPCO)은 총회를 앞두고 새로운 안전 수칙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동경전력의 나오미 히로세 사장은 총회에서 특별 세션에 연사로 참여한다.

■ 천연가스의 부활

미국 셰일가스의 급격한 성장은 게임체인저로 불리며 세계 에너지 흐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가스의 황금기’로 불리는 현재의 상황은 아시아의 셰일 가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결과와 함께 석유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가스 가격체계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런 새로운 가스의 공급체계는 다른 에너지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 석유의 미래

석유는 오랫동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피크 오일 이론(원유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조만간 원유생산이 최고점에 이른 뒤 급감하는 과정에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세계경기는 대공황과 인류는 대규모 기아사태를 맞게 된다)은 업계 주요 화두이다. 하지만 최근, 북극과 남극에 미개발된 거대 원유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산지들로 하여금 석유에 대해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늠케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접근성 문제와 더불어 고비용과 고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손에 닿지 않은 이 원유지들에 도달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 신재생

일본의 원자력 사고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동시에 특히, 중국과 유럽에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천연 가스의 비용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전기시사용어 해설 Smart 토크

세부프로그램 구성

Fire Starter	비에너지 분야의 저명인사로서 각 일별 주제와 관련된 전 지구적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화두 제시
Keynote Speaker	Fire starter가 던진 화두를 에너지 분야의 명사가 이어받아 관련 이슈에 대하여 연설
Plenary	토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Plenary 세션은 정해진 주제와 연관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안 모색
Issue Sessions	이슈 세션에서는 앞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소규모로 진행
Special Address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가 각 일별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강연 진행
Ministerial Dialogue	주요 국가의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 각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토론 진행
Concluding Remarks	총회 진행자가 하루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하고 내일의 주제를 소개하는 시간

■ 미래에너지리더 프로그램

(Future Energy Leaders Programme)

각국 에너지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이 모여 에너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미래에너지리더 프로그램에서 도출된 토의 결과는 선언문으로 작성되어, 에너지 업계에 참신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다.

■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

(Developing Country Programme)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에너지산업 발전사(發展史)를 개발도상국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

구축과 함께 최신 기술과 제품을 널리 알리는 전례 없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진출과 투자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총 전시면적은 22,000m²로 25,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즈니스데이와 대중의 참여가 가능한 퍼블릭데이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시구성

발전	전력, 원자력, 스마트그리드 등
화석연료	석유, 석탄, LNG/LPG 등
신재생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기타	기관, 금융, 언론, 컨설팅 등

■ 세계 에너지 협의회

(WEC: World Energy Council)

세계에너지협의회(이하 WEC)는 1923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에너지 전문 국제 민간기구이다. 설립초기에는 전력분야 공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시회

총회기간 함께 진행되는 전시회는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 핵심 인사들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전기시사용어 해설 Smart 토크

세계대전 후 피폐한 전력사업을 재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차차 에너지 전 분야로 영역을 확대했다. 본부는 런던에 두고 있으며 회원국은 전 세계 92개국이다. 각 회원국에는 정부기관, 연구기관, 기업, NGO, 대학 등에 소속된 에너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WEC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공급과 이용”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간 수 차례에 걸쳐 연구보고서와 각 국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한 정책평가 자료를 내고 있다. 3년 주기로 개최하는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는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에너지 관련 컨퍼런스(전시회 동시 개최)로 정평이 나 있다. WEC는 의장, 공동의장 그리고 각 대륙별로 1명씩 총 7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과, 연구, 재정,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3개의 상임 위원회가 핵심 지도부이다. WEC는 매년 전체 회원국이 모여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연차총회

(Executive Assembly)를 열고, 각 부의장 주재 하에 대륙별 지역회의(regional meeting)를 연간 수 차례 개최한다.

■ 세계 에너지 총회 (World Energy Congress)

1924년 이후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에너지 관련 국제회의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기업, 정부, 국제기구, 학계, 협회 등 모든 에너지 분야 리더 및 관련자 5000여 명이 참석해 약 1주일 간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에너지 관련 세계 주요 기업들의 최신기술 홍보 및 정보교류의 장이 될 전시회와 각종 이벤트가 동시에 개최되는 세계 에너지업계 최대행사이다. 지난 2008년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된 WEC 집행 이사회는 한국의 대구를 22차 세계 에너지 총회 개최지로 선정했다. 2013년 총회 개최를 위한 주관 기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시, 경상북도, 한국전력공사 및 SK에너지가 포함된다. 